

대장암과 대장선종에서의 Cyclooxygenase-2의 발현

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, 중앙 연구실[§]

김정옥[■] 조준형 정현주[§] 장세경

목적 : aspirin과 sulindac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소화기계 종양, 특히 대장암과 전구병변인 선종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역학 조사와 동물실험으로 보고가 있었으며, 그 기전의 하나로 cyclooxygenase-2 (Cox-2)과 관련된 세포 증식의 억제제가 제시되고 있다. 이에 본 저자들은 대장암과 선종에서의 Cox-2 유전자의 발현의 빈도를 보았다.

방법 : 중앙대학교 부속 병원에 입원한 21명의 대장암 환자와 20명의 대장선종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대장암에서는 내시경적 생검 및 수술 후의 조직 표본으로 하였고 정상 조직과 암조직을 대조군으로 하였다. 대장선종 환자에서는 선종의 내시경적 생검을 조직 표본으로 하였다. 조직은 수술 후 동일 환자의 종양 조직과 정상 조직에서 각각 취한 후 RNA를 추출할 때까지 -70℃에서 냉동 보관하였다. 조직에서 total RNA를 분리하고 Cox-2 primer를 이용하여 RT-PCR과 DIG (Digoxigeni) labelled probe를 이용하여 Cox-2 mRNA의 발현을 관찰하였다.

성적 : Cox-2 mRNA의 증가는 대장암 환자의 암조직에서 33.3%(7/21), 선종 환자의 선종 조직에서는 15%(3/20)에서 관찰되었으며 대장암 환자의 정상 조직에서는 관찰되지 않아 대장암에서 Cox-2 발현의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.

결론 : 대장암에서의 Cox-2 mRNA 증가로 볼 때 Cox-2가 대장암 발생과정 일부에 관여할 것으로 사료된다.

대장 점막하 병변에서 초음파내시경의 유용성

고려의대 내과학교실, 소화기연구소

전훈재^{*}, 강민승, 김윤배, 이구, 이성준, 김광희, 권오상, 진윤택, 이흥식, 송치욱, 엄순호, 이상우, 최재현, 김창덕, 류호상, 현진해

서론: 근래 대장 내시경검사가 임상적으로 보편화되며 대장 점막하 병변의 발견율이 증가되고 있으나 점막하 병변의 확진에 대한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. 그러므로 현재까지도 대장점막하 병변의 치료방향 설정이 임상에서 문제시되고 있다. 초음파내시경은 비침습적방법으로 소화관벽의 층구조를 얻을 수 있어 위장관 병변의 평가에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대장점막하 병변에서의 보고에는 드물다. 이에 연자들은 대장 점막하 병변에서 초음파내시경검사의 유용성을 보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: 대장 점막하 병변의 평가를 위하여 초음파내시경을 시행한 환자 중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총 23명(남자 11명, 여자 12명)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, 대상군의 평균연령은 51.3세(22-78세)이었다.

결과:

Diagnosis	n	EUS findings			
		Layer of origin	Echogenicity	Internal echo	Border
Carcinoid	10	mm sm mp	Hypoechoic	Homogeneous	Regular
Lipoma	7	sm	Hyperechoic	Homogeneous	Regular
Lymphangioma	2	sm	Anechoic	Multilobular	Regular
Leiomyoma	1	mm	Hypoechoic	Homogeneous	Regular
Endometriosis	1	mp	Hypoechoic	Homogeneous	Regular
Abscess	1	mp	Hypoechoic	Inhomogeneous	Regular
Prostate cancer	1	extraluminal	Hypoechoic	Inhomogeneous	Irregular

mm:muscularis mucosa sm:submucosa mp:muscularis propria

결론: 초음파내시경검사는 대장 점막하 병변의 확진에는 한계점이 있으나 감별 진단 및 치료방향의 설정에 유용 할 것으로 사료된다.